

“K-콘텐츠 해외 진출 확산 · 금융지원 확대”

문체부, 2022년 업무계획 발표... 국민 체감 문화일상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한류 확산, 국민의 문화일상 회복, 예술인 권리 신장 등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화강국 위상 공고화, 문화일상의 조속한 회복, 미래 문화·체육·관광 기반 강화의 3대 중점과제를 핵심축으로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방탄소년단(BTS),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 한류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문화교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내년 개관하는 미국 뉴욕 코리아센터, 주스웨덴·주오스트리아 문화원 등 재외문화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매체예술(미디어예술)을 활용한 한국 문화 소개에 68억원, '코리아콘텐츠 주간' 개최 80억원, 한류 수요층 대상 문화 체험 지원 17억원 등 예산을 투입해 문화·경제 교류를 강화한다.

식품, 미용 등 한류 연관산업의 해외 수출 확대도 지원한다. 신규 예산 45억원을 들여 드라마 제작사·방송사와 식품·미용 등 한류 연관산업의 기업 간 협업을 매개로 드라마·예능 등을 통한 간접광고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 40억원을 들여 한류 콘텐츠 및 연관 산업 제품을 직접 체험·구매할 수 있는 가상 종합홍보관을 인도네시아에 조성하고, 온라인 세계 쇼핑몰에 '케이(K)-브랜드' 전용관을 운영한다.

한국어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세종학당 지정 및 전문교원 파견 대상을 기존 234곳에서 270곳으로 36곳 확대하고, 현지 교원 양성과정 지원 국기도 12개국에서 16개국으로 늘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 체육 등 관련 업계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극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관광과 체육 분야의 피해지원 용자를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는 총 4280억원 규모의 관광·체육 용자 원금을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관광 용자의 경우 신용보증을 통한 특별 용자 규모를 전년에 비해 2배 확대한다.

체육·유원 시설에 대규모 방역 물품도 지원한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대응, 업계와 종사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체육시설·영화관 인건비 746억원, 8810명도 지원한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 국민 참여형 문화예술 행사 개최, 지역 스포츠클럽 활성화, 안전한 국내 관광 여건 조성 등에도 나선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획도 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의 아픔과 희망을 예술가의 시선으로 기록하는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결과물 약 950건을 공개한다.

백남준 작가의 국내 최대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작품인 '다다익선'도 복원하고 특별 전시, 관련 학술행사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기술 혁신을 통한 실감콘텐츠·확장 가상세

계(메타버스) 등 신규 서비스의 창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방송영상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전년 대비 184억원 확대한 1323억원을 배정하고, 지난해 출범한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를 통해 기획·관리·평가 기능을 강화하며 기술사업화도 확대한다.

OTT 영상콘텐츠의 제작·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등급 분류제를 도입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문체부 소관 정책자문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위원회를 확대하고, 이를 총괄하는 청년문화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 시 제재조치 도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밖에 가칭 이견회 기준 등 특색 있는 문화시설을 만들고, 지역 관광 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류 등 문화의 힘으로 세계 속 대한민국은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 업계 종사자와 국민의 일상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내년에는 국민들의 문화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한국을 대표하는 부안청자와 중국 경덕진 청화자의 혼을 이어받은 한국과 중국 도예가들의 작품교류전시회가 이번달부터 2022년 5월까지 150일 동안 부안청자박물관 문화마실 청자갤러리에서 교류 전시를 개최한다.

부안청자박물관, 한·중 전시교류전

내년 5월까지 부안청자·경덕진 청화자기 교류전 'Blue & Blue'

한국을 대표하는 부안청자와 중국 경덕진 청화자의 혼을 이어받은 한국과 중국 도예가들의 작품교류전시회가 이번달부터 2022년 5월까지 150일 동안 부안청자박물관 문화마실 청자갤러리에서 교류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교류전은 푸른빛깔을 주제로 양국의 도예가들이 청자와 청화자의 작품들을 전시하여 민간예술교류 및 행정교류로 확대하기 위함이다.

"靑磁" - 푸른 빛깔의 자기의 화려함은 우리역사의 문화자산으로 전승과 창조를 통한 미래문화산업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유산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인의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靑花" - 16세기 대항해시대에 유럽을 뒤흔드는 세계도자산업의 중심이었던 경덕진 청화자는 흰백자위에 눈이 부신 청화 안료로 섬세하고 신비로운 아라베스크 문양을 시문한 원시대 중국의 하이테크 상품이 었다.

이번전시는 도자문화 계승발전과 지역도자산업 확산을 위하여 양 도시간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중국 경덕진 출신 도예작가 작품과 한국의 부안관요와 부안도예가의 작품들을 전시한다. 또한 13세기 부안청자가 14세기 중국청화에 영향을 끼쳤을 경덕진의 청화자와 부안청자를 비교하며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크며, 나아가 양 도시간의 교류를 통한 학술, 예술교류 및 인적 교류를 통해 도자문화를 정립하고 해외에 알리는 기회로 전시를 보여주고자 한다.

한편 부안군 청자박물관 최동현 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하여 청자박물관 대외교류 확대와, 특색 있는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여, 역사적으로 찬란한 도자문화를 가지고 있는 부안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국 공예문화, 구글 아트 앤 컬처 서비스로 전세계와 만난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은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와 협업해 한국 공예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전 세계에 선보인다.

공진원은 코로나19 이후 익숙해진 비대면 전시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한국 공예문화를 전 세계에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글 아트 앤 컬처와 협업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구글 아트 앤 컬처는 전세계 80여개국 2000개 이상의 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고 예술 작품, 역사 자료, 세계 문화유산 등을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는 구글 아트 앤 컬처의 비영리 온라인 전시 플랫폼이다. 1만개 이상의 온라인 전시, 600만개 이상의 예술작품, 사진, 동영상, 원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고 있으며 한국 공예의 재료 및 기법 등을 전반적으로 선보이는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온라인 전시에서는 하나의 오브제 아트로서 제작한 미술공예와 전통공예에서 영감을 얻어 재해석한 작품, 그리고 일상 공예품을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현대 공예품 등이 주를



이룬다.

'공예주간' 하이라이트에서는 메인전시와 특별 협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를 소개했다. 이번 구글 아트 앤 컬처 온라인 전시의 주제 선정과 작품 큐레이팅은 공진원이 계간으로 간행 중인 '공예+디자인' 잡지의 정성갑 편집장이 담당했다.

김태훈 공진원 원장은 "공진원과 글로벌 전시 플랫폼인 구글 아트 앤 컬처의 협업 프로젝트는 한국 공예문화가 국내외에 더욱 널리 홍보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한국 공예가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브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국립민속국악원, 판소리마당 꿈나무 무대 출연자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판소리 공연의 정착과 판소리 인재발굴을 위해 기획한 판소리마당(소리 판소리 무대)에 출연할 소리꾼을 모집한다.

오는 2022년 2월 매주 토요일에 진행 될 초·중·고등학생 대상 '꿈나무 무대'는 판소리 5바탕(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 중 30분~60분 이내 눈대목을 부를 수 있는 자

로, 공모 후 공연경력, 실기역량 등을 심사하여 출연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이메일(suim01@korea.kr)로만 가능하고, 선정된 자에게는 무대 운영을 비롯해 출연료, 공연홍보 등을 지원한다.

/남원=김기무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